

보도자료

2026. 4. 30.(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방송미디어본부 방송콘텐츠진흥팀 한성돈 팀장(061) 350-1401
배 포 : 경영기획본부 ESG혁신홍보팀 최근수 대리(061) 350-132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칸 국제 연속물(시리즈) 축제(페스티벌) 연계 한국 드라마 해외 확산 및 경쟁력 입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제9회 '칸 국제 연속물 축제(칸 시리즈)'에서 한국 방송 꾸림정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상영회와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칸 연속물 축제는 전 세계 방송·꾸림정보(콘텐츠) 산업 관계자와 국내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행사로,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꾸림정보(콘텐츠) 상영과 시상, 산업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해외 유통 승강장(플랫폼)이다.

그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프랑스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하며 우리 꾸림정보(콘텐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작품 상영과 현지 투자 설명회를 통해 해외 관계자와 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2년 연속 전 좌석 매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행사는 국가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과 꾸림정보(콘텐츠)가 결합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한국 드라마 모형(모델)을 일반 관객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작은 ▲ ‘신의 구슬’(SLL(주)) ▲ ‘당신의 모든 것’(필름다이어리) ▲ ‘젠플루언서’(주무암) ▲ ‘은밀한 감사’(씨제이이엔엠) ▲ ‘블러디 플라워’(주)이오콘텐츠그룹) ▲ ‘곡두’(영화사36) ▲ ‘21세기 대군부인’(주)문화방송) 등 총 7편으로 한국 드라마의 해외 유통 및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이번 칸 연속물 축제 연계 해외 유통 지원을 통해 한국 드라마가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방송 꾸림정보(콘텐츠) 모형(모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방송 꾸림정보(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방송콘텐츠진흥팀 마경선 대리(☎ 061-350-14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